

연애편지는 수줍어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어서 완전히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는 읽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건네는 쭈뼛한 말이자 어쩌면 영원히 전달 할 수 없는 감정이 쓰인 고백이다. 대양을 넘고 대륙을 거쳐 꼭 언젠가 도착할 것이라 약속하는 미지의 쪼가리처럼, 소리 역시 듣는 사람의 감정의 대양과 인식의 대륙을 넘어 우리에게 가닿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나의 작업은 언어와 음성, 이미지의 관계에 주목한다.

말더듬이 상태로 10여 개월을 지냈다. 읽고 쓸 수 있지만 듣고 말할 수 없는 말더듬이의 상태는 의사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듣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했다. 언어는 특정한 약속 아래 읽히며 이해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음성은 이해 이전에 높낮이, 강도, 말과 말 사이의 간격 등으로 듣는 이에게 정서를 자아낸다. 음성은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가진 소리 자체로 매혹적일 수 있으며, 우리를 특정한 상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끈다.

말소리는 노래하듯 들리고 의미는 나중에 찾아왔다. 내가 경험한 이런 반쪽짜리 울림은 의미를 만들어내다가도 넘어지며 온전한 의미 전달에 실패했다. 이러한 것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법, 사회적 통념, 시각 체계, 등 믿어왔던 세상의 단위가 뒤흔들렸다.

이렇게 언어와 소리 사이의 틈바구니를 잡아내려는 시도는 다른 언어를 가져오기, 흥내 내기, 쓰인 글을 반복해서 읽기, 흥얼거리기 등으로 작업 속에 스몄다. 이 때 동반하는 이미지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과 행위를 의심할 수 있게 해준다.